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5호 현대불교

29

2011년 9월 28일(음 9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음은 마음이 다스려야지 말로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발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대불교신문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한 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모두 인연 닿는 대로 구독을 하계끔 여러분이 권유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행회장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징검다리를 놔 주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하면서, 이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력을 하는 컴퓨터를 쓰지만 앞으로는 입력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컴퓨터를 쓰게끔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불어는 인구와 더불어 발전하는 시대를 뒤따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실천공행을 수범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지, 공(空)에 빠지거나 물질에 허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자재할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 아니게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스스로 그 빛을 발해라 하신 것입니다. 만물만생이 다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또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불(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한마음으로서 한바다에 들어서, 그 바다 가운데서 불꽃 솟아서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먹여 줄 수 있고, 먹여 주고도 되니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부는 이 공부 밖엔 없습니다.

또 신행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견지동(한마을 불교회관)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고 거뒀서...;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알게 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그림 · 최주현

끔 보시하는 것도 더러 있지만, 장학금이라든가 많은 보시들을 지금 우리 선원에서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가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뭐든지 공개하고 주게 된다면 나부터라도 창피하고 괴롭게 생각되고 모자라고 어리석다고, 자기가 자기 원망을 무수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이 모르게, 공개하지 않고 이끌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만 일체 한마음은, 일체제불의 마음은 아마도 다 잘 알고, "허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구나! 참 착하다, 착하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뜻으로 본

다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공개했다가 만약에 잘못 받아들여지면 정말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행위를 저지르기도 모릅니다. 그런 스스로 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뿌리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그렇게만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회의를 갖더라도 견지동 장소를 찾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데서 나오고 저런 데서 나오는 것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가져오시는 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

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되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덩어리를, 고(畜)의 덩어리를 갖다가 준 것을 만약에 함부로 아무 데나 쓴다면, 그쪽 고통이라도 제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고를 면치 못할 겁니다. 고를 안 당하려고 예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 이치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돈이 고통거리로 보이고 들로 보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좀더 생각한다면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다면, 발 편한히 공부할 수 있고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참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사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참나에 옷을 벗으면 금방 그냥 오간지옥에서 데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자기 살던 처원에 따라서 그냥 모습을 쓰고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운 거보다도 나 하나만 죽지만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내 배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씨앗이 전부 그 뿌리를 쫓아서 악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또 바깥으로 배출해 낸, 즉 말하자면 지식들을 어떻게 할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면 그 구덩이에 역시 또 쫓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부처님의 법이 예누리가 없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법과 부처님의 법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면 증명해야 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느껴야 하고, 스스로 감지해야 하고, 감응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행제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 겸 서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든, 알려달라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나 하나가 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몸통이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더불어 하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더불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더불어 듣는 거고, 가고 오는 것도 더불어 가고 오는 것이고, 움직여지는 거 하나하나, 마음내는 거 하나하나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없애야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色)이라, 그 가운데에 바로 참 너가 허공에 꽃을 피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처님의 뜻이고 이에 순응하되, 우리는 시대를 또 무시 못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돌아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내 마

30면으로 계속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뒀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멀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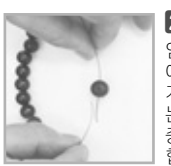
###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바둑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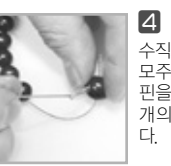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립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실) 색, 코핀1개, 펜던트, 이쑤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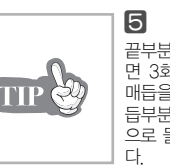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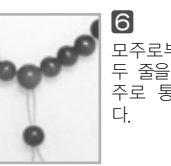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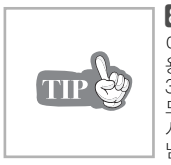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립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립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코핀을 끼워서 다시 마립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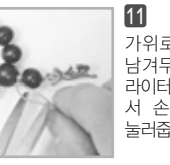
8 이때 코핀과 마립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립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실백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음을 깨닫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는 그 자체... 저 나무뿌리를 보세요.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나무뿌리에 의해서만이 썩어 살고, 나무뿌리가 싱싱해야 바로 나무 썩어 싱싱해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의 말씀이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는 제 나무를 서로 위하면서 상응하고, 정맥 동맥이 서로 돌아가듯 함으로써 일체 만물만생에게 만 가지 맛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문 구독하는 그런 문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불교신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계의 개발을 시키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 사찰의 어떠한 비리를 파헤쳐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신계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주 평등한 법으로써 불교를 숭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허허허...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으로써 생산력이 아주 화산처럼 터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흉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를 회의하는 장소로 쓰고, 아끼지 말고 전부 구독을 시켜서 그 구독자로 하여금 이익이 갈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합장하시며) 한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십시오. 적어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1(남):**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구체신증후군이라는 종합병원의 진찰을 받았습니. 그런데 지금까지 한방과 양약으로 치료한 결과 지금 양쪽 팔팔이 다 망가지고 일주일째 세 번씩 피를 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까지 나빠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크스님:** 제가 좋은 말씀을 대리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부처님의 뜻으로서 둘 아니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 자생종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 썩어 탄 썩과 탄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내 뿌리에 에너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자생종생들, 그게 업식입니다.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업식입니다. 이것이 왜 업식이라고 한다면 앞서 다 설법을 해 드렸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업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듯이 차례 차례로 나옵니다. 그게, 그런 거니까 단지 자기 참주인공의 선장밖에

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다스려야지 말이 다스릴 수가 없고 이론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주인공 그 자체 뿌리만이 할 수 있다. 너만, 네 시자인 육신을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말기심입니다. 진실히 말해야 거기에서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작용을 해 줍니다. 거기서 작용을 안 해 준다면 아무리 병원에 가서 100% 낫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내 속에서 내 생명체들이 작용을 안 해 준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나를 이끌어 가는 영원한 나의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나를 낮게 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가 말겨 놓으세요. '애당초에 피를 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거르는 것을 일 주일에 한 번 거르다가, 이 주일에 한 번씩 거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그건 본인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탄 사람이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 너부터 돌아다보아야 주인이 있어서 네 집을 지킬 수 있는니라.' 하고요. 집이 비었으면 영계가 천차 만별로 드나들어! 그래서 내 집이 망가지고, 내 일이 망쳐지고, 내 하는 일이 안되고 그런 거지만 내 집에 주인이 있다면 감히 어디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과학 하지만, 그 과학을 깨뜨려야 진짜 과학이 나옵니다. 고정되게 못을 박아서 개념화하는 과학을 해체시켜야만이 진짜 과학이, 천차만별의 과학이 터지게 됩니다. 이 진짜 과학적인 것, 심성의학이라든가 심성과학 또는 심성전체물리학 · 심성천문학 · 심성공학 · 심성철학 등 모두가 다 한군데서 배출됩니다. 움죽거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시키기만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모든 분야가 배출됩니다.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구해서 다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지 누가 고칩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면 주인이 고쳐야지, 탄 사람이 와서 고쳐 줍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하고, 제 뿌리는 제 썩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례로 돼 있죠. 나무 뿌리는 수분과 지분, 질분을 위로 공급하고, 위에서는 태양력과 공기력을 또 흡수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탄지탄하시지 말고,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탁 말기시지 죽는 것이 뭐가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갔을 때는 어느 스님께서 17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한마음선원에서는 모두 이 한마음의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이 천만 불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크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크스님:** 예, 행주좌와 관법(行住坐臥觀法)으로! 허허허...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져서 거지, 자기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돌아갔지만, 그게 막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곁들어서요. 왜 곁드느냐? 세

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지. 보세요,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예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 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마음 처에 같이 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배웠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 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러하면 안 됩니다. 앉았음음이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五戒)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비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나밖에 없다!' 하고 거기 나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헛 사이 없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없고 기도는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린든 일배를 올린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놓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우가 정해지죠, 차원이 정해지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모습을 가진 생명들이라면 그 대접밖에 못해 주는 것이지만 인간 대접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차원으로 스스로 기르는 거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고 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2(남):** 크스님, 이렇게 친절하게 돼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천만 불자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는 참선을 통해서, 또 혹자는 염불을 통해서, 또 혹자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

게를 안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받아서 볼 수 있는데다가 팽팽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성한 것도 화두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나가 곁들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라, 불을 밝혀서 앞장서서 가라.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허허허...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종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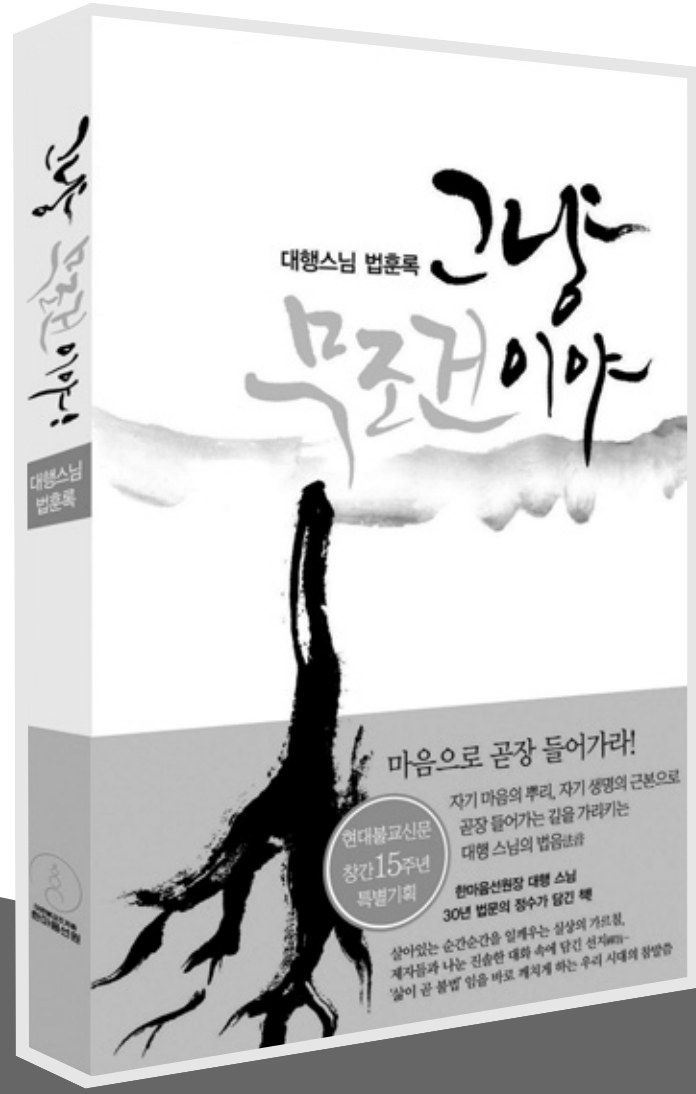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하고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